

새 오토바이 '70센트'에 산 여성



▲ 오토바이와 연결된 쇠사슬로 몸을 묶고 항의하는 여성과 잘못 표기된 가격표. 사진=유튜브(EL. PADRINO MX) 캡처

멕시코 월마트가 쇠사슬로 오토바이에 몸을 묶고 시위를 벌인 여자에게 오토바이를 13.99페소(약 70센트)에 팔았다.

사건은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 있는 월마트 매장 종업원의 실수에서 시작됐다.

멕시코의 세일 시즌 '엘 부엔 핀' 을 맞아 월마트는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섰다. 정가 1만9,999페소(약 1,000달러)인 문제의 오토바이는 30% 할인된 가격인 1만3,999페소에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점 1개가 문제였다. 천 단위로 끊어 숫자를 표시할 때 십표를 써야 하는데 가격표를 쓴 종업원은 콤마 대신 점을 찍고 말았다. 줄지에 오토바이의 정가는 19.99페소, 할인가격은 13.99페소로 뚝 떨어졌다.

과격적인 가격에 당장 오토바이를 사겠다며 계산대로 간 소비자는 모두 7명. 가격 표시에 실수가 있었다는 월마트 측의 해명을 듣고 6명은 오토바이를 포기했지만 한 여성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여성은 "종업원의 실수였다고 해도 공지된 가격은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 며 13.99페소에 오토바이를 팔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월마트가 거부하자 이 여성은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했고 소비자보호국이 중재에 나섰다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여성이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오토바이에 묶고 시위에 돌입하자 월마트는 백기를 들고 결국 문제의 오토바이를 잘못 표기된 험값에 판매해야 했다.

앞좌석 여성 머리에 껌 붙인 승객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자신의 좌석 쪽으로 넘어온 앞자리 승객의 머리카락에 껌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 공유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지난 27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자리 쪽으로 넘어온 앞좌석 여성의 머리카락에 씹던 껌을 붙이고 손톱깎이로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먹던 막대사탕을 붙이고 텀블러 속 커피에 머리카락 끝부분을 담그는 기행이 담겼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행동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헤이든이라는 이름의 한 틱톡 사용자는 "앞자리 여성은 마땅히 당해야 할 행동을 당한 것"이라며 비행기에서 뒷자리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영상 속 두 승객이 똑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이 친구일 수 있으며 조회수를 위해 일부러 그런 영상을 찍은 것



▲ 앞좌석에서 넘어온 머리카락에 껌 붙인 승객. 사진=틱톡(Supplied)

일 수 있다고 했다.

줄리안느라는 이름의 한 여성 사용자는 "누군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그 느낌을 알 것"이라며 "뒷좌석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한 행위를 앞좌석 승객이 모를 리가 없다." 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앞자리 승객은 금발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상황은 모든 것이 꾸며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크레인 동원한 비만 남성 구조 작전

비만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까지 동원한 구조 작전이 펼쳐졌다.

1일 프랑스 남서부 해안도시 페르피냥의 한 주택에서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덩치가 너무 커 문을 통해 구조할 수 없는 비만 남성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과 소방구조대원, 의사 등 5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몸무게 약 300kg의 알랭 파나비에르(53)는 몇 달 전 다리가 부러진 뒤 형제들의 수발을 받으며 집에 누워만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병인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그의 변호사가 내무부장관에게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며칠 뒤 프랑스 반비만연맹과 함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구조가 시작됐다.

구조 작전에 참여한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파나비에르가 있



▲ 비만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크레인이 동원됐다. 사진=유튜브(France 3 Occitanie) 캡처

는 2층 외벽에 구멍을 뚫고 의료보조장치를 부착한 파나비에르를 크레인에 매달린 금속 컨테이너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이어 지상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환자는 치료를 마친 뒤 몇 주 안에 재활 센터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TROPHY & ENGRAVING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